



Scene 2

2023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4. 28.~ 5. 14.

햇살에 가려졌던 작은 빛은 밤이 돼서야 기지개를 켜며 반짝인다. 때문에 밤에 마주하는 빛은 더욱 풍성하며 밝게 번진다. 대한민국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된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야간 문화 콘텐츠다. 2023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행주, 한류로 빛나다.'를 주제로 행주산성의 역사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주산성에 오르는 길목은 촘촘히 박힌 은하수처럼 은은하고 때론 화려하게 빛으로 물결을

이뤘다. 행주산성 대첩문부터 권율장군 동상, 심터 갤러리, 총장사, 대첩기념관, 덕양정, 충의정 등 12가지 장소별 빛 조명등을 설치하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행주산성 달빛여행이 진행됐다. 행사의 대미는 고양시 K타이거즈와 고양예고 아름드리무용단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장식됐다. 충의정을 배경으로 조명과 어우러진 춤사위는 관람객들에게 봄밤의 잊지 못할 특별한 낭만을 선사했다.